



2025년 2월 23일(제1235호) 연중 제7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뺨을 맞으면 곧바로 뺨을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준 만큼 받고 싶고, 뺨긴 만큼 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의 존재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나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함’으로써 나를 무한히 위대한 존재-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들과 함께하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느님의 사랑에 다가가려는 사랑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싸인이 돼 있는 책을 얻게 돼서 책꽂이에 놓고 기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난당했습니다.

“사랑하여라.”

당황하면서 한동안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한다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책을 훔친다면 모순 아닌가. 그것은 사랑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멀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랑이 없을 때에 하느님의 손길을 놓치고 하느님 닮은 인간인 자기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의 사랑에 접근하는 행동이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저 나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그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게서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준혁(벨리아) 신부
은성대(공군 제19진투부대) 상영 주임

제 1 독 시 1사무 26,2.7-9.12-13.22-23

회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시 1코린 15,45-49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루카 6,27-38

영 성 제 송 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동장부부 순교지 복지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다면 초상은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차가운 감옥에서 어찌 견디실까?
죽었거나 살았거나 어머니님 애간장은 애통듯이 녹으실 것입니다.

희아 형제(이경중·이경언)와 동아(이경도의 딸)는 병이나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매동(이순이 올케의 친정)에서 뜬한 소식이나마 언제 들으셨으며,
안어르신네(안사돈) 병환은 어떠하십니까?

이동(이순이 친언니의 시댁)에 사시는 언니 시부모께서
우리 집안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 상하여 슬퍼하시다가
병이나 나지 않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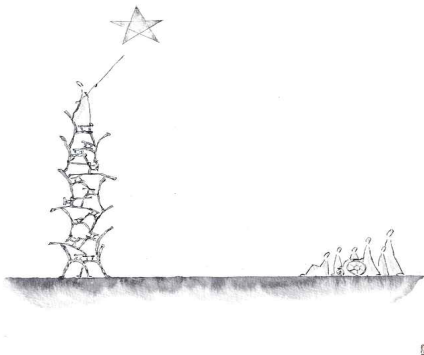
언니의 시숙께서도 평안하시고, 출아(큰언니의 아들)도 건강합니까?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동장부부 순교지 복지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신성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조심해야지



위험하게 왜.

가끔 이렇게
무모해질 때가 있지.

저 별을 따다
뒤편에 쓰려고.

가끔 저렇게.

행여 넘어질까
위태롭다.

조심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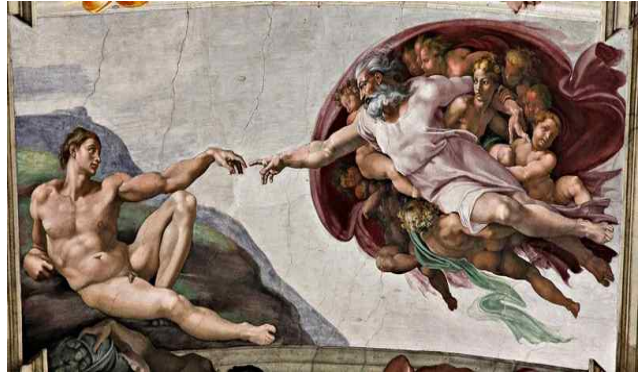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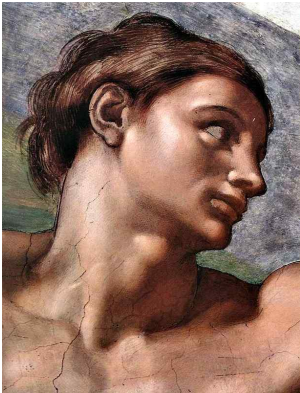
이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시스틴 경당 천장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 1511년경 재작 프레스코화, 280 x 570cm / 로마 비티킨 시스틴 경당



이담 세부도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고, 또 교황님이 선출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매우 중요한 장소인 시스틴 경당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그려져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자 등 각종 인물들이 마치 건축물처럼 보이는 공간(모두 그림) 속에 있는데, 이 그림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이다.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아담이 생명체가 되는 순간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미켈란젤로는 힘없이 축 늘어져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있는 듯한 아담의 왼손 손가락에 하나님이 그 힘을 막 붙여넣으려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였다.

하느님은 붉은색 걸옷처럼 보이는 옷에 둘러싸여 공중에서 아담에게 오른손을 내밀고 계신다. 하느님을 둘러싼 이 붉은 형상을 두고 어떤 이는 인간의 뇌와 같다, 어떤 이는 (아담의 탄생이기에) 여성의 자궁 모습과 같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피가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과도 같다고 한다.

또 하느님이 한쪽 팔을 두르고 있는, 아담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을 어떤 이는 이브라고 하고(가장 널리 인정받는 주장), 성모님, 혹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이 여인을 제외한 11명의 인물은 장차 아담과 이브를 통해 전 세계를 가득 채운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켈란젤로가 직접 그 해석을 남겨 놓지 않았기에 누구에게도 정확한 답은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을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7주일: 열심 하심리 신부

◆ 교구장 동정

- 청룡오리정(해병2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2월 23일(주일)
-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5일(화) 19:00, 성루카 성당
- 해군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6일(수) 17:00, 해사 성당

- 공군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6일(수) 17:30, 성무대 성당
- 학생군사학교 임관미사
 때·곳: 2월 26일(수) 19:00, 문무대 성당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상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사도 1:8)